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2017 봄호

www.jungtoh.org

정토마을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행사일정

2017.3월 ~ 2017.6월

정토마을법인사무국

- 제4차 법화경 독송 천일기도 : 2017년 2월 26일 입재
- 미얀마 성지순례 및 국제 구호 의료봉사 : 2017년 3월 13일 ~ 3월 19일
- 진신사리 봉안 1,000일 기도 : 2017년 4월 16일
-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 2017년 5월 3일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개원일 : 2017년 6월 15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여름방학 명상특강(공개) : 2017년 7월 15일 ~ 16일

마하보디교육원

- 8기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 2017년 4월 12일 ~ 4월 14일
- 45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 2017년 7월 30일 ~ 8월 5일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 매월 환우 생신잔치

발행처 (재)정토사관자재회 **발행일** 2017년 3월 31일 발행 **편집인** 능행 등록_울산바01004(2008.4.11) **편집위원** 김국제 장광대 최영원
사진 편집부 **정토마을(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052-255-8588) **정토마을(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
 원면 미원초정로 856-19(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052-255-8521)
디자인·편집 이노디자인(02-834-2213~4) **제작** (재)정토사관자재회 | 비매품



2017 봄호(통권 111호)

목 차

01 여는 글	4
02 명상카툰	6
03 의학상식	7
04 병원 둘러보기	11
05 힐링푸드 레시피	15
06 교육후기	17
07 법화경 독송 제4차 천일기도	21
08 법화경강설	23
09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26
10 정토자재병원 환자 가족 분의 글	30
11 연재글	32
12 청주정토마을 이야기	34
13 원장스님 후원 감사 글	35
14 정토마을 소식	38
15 광고	43

사월의 노래

정유년 설날 정초 범화경 독송 21일 장작기도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봄을 시샘하는 눈이 내리고 땅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느끼게 되는 사월……. 자재병원앞뜰 모과나무에서 피어나는 잎사귀들과 붉디붉은 동백꽃 노란 암술이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사월의 詩

사월의 바람은 꽃을 피우고
고단한 나의 삶은 가치와 의미를 피우네.
사월의 시린 햇별은 가슴 뛰게 하는 희망을 피우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는 나의 삶…
그 위에 길상 함이 피어나네.
사월의 땅은 생명을 피워내고
살아 있음이 그저 지복한 나의 삶.
그 안에서 강물 같은 자비를 만들어보네.
사월 속에 살아있는 나는
아기의 속살 같은 진달래를 만날 수 있어
더더욱 기쁘다네.

— 능행



사월이 오면 유달리 할 일이 많아지지만 새소리 들으며 새처럼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앞산, 뒷산 솔숲 오솔길을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솔 향에 취할 때마다, 꽃받침 위로 흰 색꽃잎이 피어나는 제비꽃도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여정이 멈추는 그 순간에, 올해의 봄이 유난히 아름다웠노라 추억하며, 입가에 행복한 미소 가득 담은, 행복한 나를 가슴속에 담을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온 산천이 푸름으로 태어나고 정토마을 목련도 화들짝 터지는 날, 자재 병원에도 한번 다녀가 주소서. 병원 뜰에 예쁜 꽃씨도 뿌려주시고 꽃나무도 심어주시면, 심신이 지친 환자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모든 이들에게 부드러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4월은 꽃잎이 방그레 방글 방글, 양지바른 텃밭에 감자를 파종해야 하는 정토마을 스님 네들의 바쁜 일손...

밀거름 삼태기에 담아 뿌리고, 땅속에 아채종자를 심는 그 모습들은 한 폭의 그림 같지만, 고단하고 힘든 봄의 향연이기도 하며,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기도 하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뿌려줄 손길도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정토마을.

주말이 되면 정토마을 봉사자 가족인 당신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사월에는 무거운 외투를 벗고 내뿜는 아지랑이에 가슴을 열고 푸른 기운을 가득 넣고 산뜻한 봄 옷에다 화려한 외출을 준비하는 마하보디대학원 학생들을 기다리며 입학준비하는 설레는 가슴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피어나는 봄입니다.

그래서 사월에는 우리 모두 지금과 내일을 향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나 또한 소중한 정토마을 사부대중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넓혀 가려고 합니다.

당신께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봄 꽃처럼 피워 가시기를 빌며.

늘 정토마을 후원자이신 당신의 삶 위에 길상 함이 꽃 비로 내려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유년 사월 간월산 정토마을자재병원 뜰에서 **능행 합장**



심연 용정운 | 불교일러스트레이터, 카투니스트

2012년 불교언론문화특별상 수상.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으로 2011년 올해의 불서 우수상 수상.
회향 : www.zentoon.com / 이미지보리 : www.ingebori.com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내과부장 권재춘

봄철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대처

겨울 내내 하얗게 내리던 눈과 매섭게 몰아치던 바람이 멈추고 봄을 부르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꽃이 피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기다리고 있을 이 시기. 그러나 한편에서는 봄이 오는 걸 두려워하며 집안으로 꼭꼭 숨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철이 되면 코끝이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거나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한다. 하지만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이고 발작적인 재채기, 설세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맑은 콧물, 숨 쉬기 힘들 정도의 코 막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봄과 새싹, 만개하는 꽃들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괴로움과 힘겨움의 대상일 뿐이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다. 본 소고에서는 봄철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대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알레르기 비염이란 어떤 병인가?

코 점막이 다양한 원인물질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이러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겐이라 한다. 이러한 알레르겐이 호흡을 통해 코로 들어오면 히스타민이라는 천연화학 물질이 체내의 세포에 의해 방출되어 코 안에서 다량의 점액이 생성되고 부풀어 오르며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콧물이 흐르고 가려우며, 발작적이고 심한 재채기를 하게 된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가려워지며, 목이 아프고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자주 발생하여 환절기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외에도, 코나 눈 주변의 가려움증, 냄새 감지능력의 감퇴, 두통, 눈부심, 피로 등의 증상이 같이 생기기도 한다. 소아 때부터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며, 잘 치료하지 않아 오래되면 코는 항상 막혀있게 되고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얼굴 발육이 위 아래로 길쭉한 기형이 되기 쉽고 치아 부정교합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2)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① 유전적 요인

알레르기비염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유전적인 소인을 가져서 부모 양쪽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진 경우 약 75% 정도에서 자식에게도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유전적인 요소가 크다.

② 환경요인

교통수단의 발달, 주거환경의 변화, 대기오염의 증가나 습도의 저하, 저온도 등이 코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된다.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오존(O₃), 디젤엔진 배기가스 등이 알레르기비염 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다. 대도시, 공단 주변에 자신이 살고 있다면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스트레스 자극

스트레스 자극이 알레르기비염을 유발하는데 크게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스트레스 자극이 뇌의 중추신경으로 면역, 내분비,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항상성 유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는 특히 면역계에서는 면역의 과잉반응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만들어지지 않아도 좋을 항체, 즉 원하지 않는 항체를 생산하게 하고 이것이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혈관, 신경, 선, 조직 등에 반응하여 다채로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④ 연령

연령과의 관계는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이 가능하나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남자아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⑤ 집 먼지진드기, 집 먼지,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통년성, 즉 어떤 특정 시기가 아니고 1년 내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으로는 집 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바퀴벌레의 허물이나 배설물 등을 꼽아볼 수 있다. 특히 집 먼지진드기의 경우 침대를 많이 사용하게 된 요즘에 있어 더욱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만일 계절에 상관없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한다.

⑥ 고초나 잡초, 꽃, 나무 등의 화분(꽃가루)

봄철, 혹은 가을철 식물의 화분이나 꽃가루가 원인 항원이 되어 발생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일명 화분증이라 하며 건초를 모을 때 코 속에서 작열감이 발생한다고 하여 건초열, 고초열이라고도 한다. 시기별로 다음의 식물들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봄(3~5월) : 나무/수목 ⇒ 자작나무, 소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 등

→ 늦봄~초여름(6~7월) : 목초/풀 ⇒ 잔디, 큰조아제비, 호미풀, 김의털, 오리새 등

→ 늦여름~초가을(8월~10월) : 잡초 ⇒ 쑥, 돼지풀, 환삼덩굴, 명아주, 비름 등

3) 봄철 알레르기 비염의 예방과 치료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본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봄철 알레르기 비염인 관계로 이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철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큰 예방법은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다.

즉, 원인이 되는 물질이 비강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다만 주의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과용 얇은 종이마스크는 입자크기가 큰 꽃가루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꽃가루를 걸러낼 수 있는 황사, 꽃가루 전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르스 때 유행했던 KF94나 N95 마스크처럼 필터가 좀 더 세밀하고 작은 물질까지 걸러줄 수 있는 마스크가 가장 좋지만 이러한 마스크는 착용감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힘들며 꽃가루 방지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에는 그림과 같이 비강 안에 착용하는 마개형 마스크도 나와 있는 상태로 마스크 착용감을 불편해하는 분들이나 미용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여 원인이 되는 물질을 회피한다 하더라도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 후 의복에 묻은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봄철 꽃가루, 황사 등의 원인물질은 매우 미세하고 직물 등에 잘 붙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 털어낼 수 있는 물질을 털고 입었던 옷을 방이 아닌 베란다 등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울러 머리카락이나 손에 묻은 원인 물질 제거를 위해 외출 후 가급적 빨리 샤워 등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어린아이나 노년층이 있는 집은 환기 시 외부의 원인 물질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 출시되는 공기청정기 들은 꽃가루 이외에도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꽃가루와 함께 황사 등의 원인물질까지 줄여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대부분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와 상의 후 적절한 약제의 사용은 증상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



현재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하여, 스테로이드 비강스프레이, 항류코트리엔제,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프레이 등 다양한 약제가 시판되고 있는 만큼 일반인이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증상에 맞는 필요한 약물만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흡연을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금연을 하시길 권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비강 및 호흡기가 자극되어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러한 것 중에 으뜸이 흡연이다.

흡연을 하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다고 치료하길 원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므로 알레르기 비염이 괴롭다면 금연을 할 것을 권한다.

더불어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봄철 환절기 감기에 대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예전에 알레르기 비염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며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전에 알레르기 비염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만 알고 저절로 치유되기를 기다렸다 증상이 심해져 견디다 못해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환절기 감기는 코 막힘, 콧물 등 코 증상이 알레르기비염과 매우 유사하여 전혀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착

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알레르기 비염 역시 이전에 없었다고 해서 영원히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더라도 산업의 발달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원인 물질이 증가하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다고 영원히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1970년대 산업화 이전에 덜 오염된 공기와 공업이 발달되어 오염물질이 많아진 현재의 공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괜찮았더라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환절기 감기와 착각해서는 안된다.

통상 감기의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게 인후통, 미열과 같은 전신증상이 동반되며 5~7일 정도 지나면 별다른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기간에 걸쳐 콧물, 재채기 등이 나며 계절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며 누구에게나 시작과 설렘을 주는 계절이다. 만일 지금까지 봄철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 즐거운 계절을 만끽하지 못했다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간의 예방책과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봄을 즐기는 1인에 동참하는 것이 어떨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한다.



→ 1층 병원 로비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Healing is Loving



현대 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고 생명존중, 영적치유에 가치를 두어
붓다의 무한한 자비를 바탕으로 조건 없는 나눔!
실천하는 의료 기관 불교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입니다.

→ 2층 테라스



→ 호스피스 환자 가족실

→ 작별을 준비하는 바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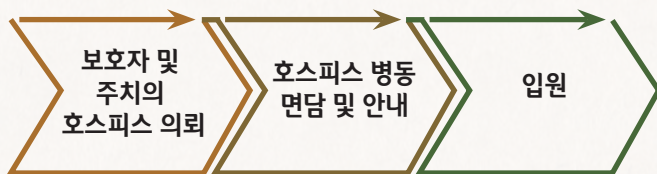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운영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 입원 대상자

입원대상자는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로서

- 현대의학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환자
- 암성통증 및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 주치의나 호스피스 담당자가 호스피스 진료를 추천하는 환자

입원시 필요한 절차



입원시 필요한 서류

- 진단서(조직검사포함)
- 의무기록사본
- 최근 CT or MRI 사진 사본

정상적인 신체적 증상과 대처방법

■ 차가워짐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손, 발, 팔, 다리, 몸의 중요한부분 순으로 싸늘해지고 피부색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합니다. 담요를 덮어주는 것은 괜찮으나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면

환자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환자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인과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 혼동하는 것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해서 혼동을 하게됩니다. 이때는 내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거나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 실금 또는 실변

환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 조절을 못 합니다. 기저귀를 채우거나 침상에 흡이불 등을 깔아줍니다. 침상을 청결하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 울혈

가슴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나는데, 분비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나는 소리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줍니다.

■ 불안정함

불안정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편안한 음악이나 책 읽기 등이 도움됩니다.

■ 수분과 음식 섭취량의 감소

몸의 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필요량이 감소됩니다.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 소변량 감소

섭취량이 감소되면서 소변량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 호흡양상의 변화

중간 중간 무호흡이 동반되는 호흡양상이 발생하는데, 머리를 높여주고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정상적인 정서적, 정신적 영적 증상과 대처방법

■ 위축

반응이 없어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게 됩니다. 환자는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정상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말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환자가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 “환상”과 같은 경험

환자는 이미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로 없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 전환되려고 준비되는 중입니다. 그런 것은 정상이라고 설명해줍니다.

■ 안절부절 못함

환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때는 환자가 평소에 즐겼던 장소, 좋았던 경험을 상기시켜주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종교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 대인관계 감소

환자는 몇 사람 혹은 단 한사람과 있으려고 합니다.

■ 환자의 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고, 당신 자신의 요구를 이루려고 환자를 죽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죽어가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언제라도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 인사

환자가 떠날 준비가 되었고 가족이 환자를 보낼 수 있으면 이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환자를 고틱 껴안아 주거나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면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해줍니다. ‘당신을 사랑해’, ‘내가 잘못했던 일이나 불편하게 해주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에 대해서 감사해요.’ 등의 작별 인사를 나눈다. 나중에 “왜 내가 그때 그런말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않도록 합니다.

봄의 대표주자

쑥



쑥은 비타민 C뿐 아니라 비타민 A 또한 풍부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춘곤증에 도움을 주며,
그밖에 칼슘, 철분, 아연 등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감기예방에 도움을 주며,
위장에도 좋고 항암효과까지 있어
민간요법의 단골약재로 사용되어 왔죠^^

더 나아가 쑥은 황사나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가는 우리 몸을 정화시키고 냉기를 몰아내어
몸을 따뜻하게 해 주며,
잡초의 특성상 먹는 용도뿐 아니라
의식주 전반적으로 쓰임새가 있어
방향제, 화장품, 천연염료 등 “힐링”이라는
키워드 전반에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하죠.

이러한 화려하지도 않고,
봄에 지천에 수줍게 숨어있는
수더분하고 평범한 외모를 지닌
팔방미인 쑥을 콩가루를 묻혀
된장국으로 끓여보는 건 어떨까요?



쑥 된장국

무엇을 넣고 하죠? 🍲

쑥2줌, 대파1/3대, 된장1.5숟가락, 콩가루2숟가락, 소금 조금

국물은요? 🍲

다시멸치, 건다시마, 무, 물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를 넣어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죠? 🍲

- ① 냄비에 국물 만들 재료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약한불로 더 끓여주세요.
 - ② 쑥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고, 대파는 어슷썰어 주세요.
 - ③ 육수에 된장을 넣고 끓이고
 - ④ 쑥에 콩가루를 묻혀 끓는 된장국에 넣고→ 쑥이 익으면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 해 마무리
- ※ 콩가루가 완전히 익기 전에 국을 저으면 콩가루가 풀어져 국이 지저분해지니 이것만 알아 두세요!!

와~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콩가루 대신 들깨가루를 넣어도 되구요,
홍합, 찐구미, 조갯살, 그리고 유명한 도다리등 다양한 재료를 넣으면
심심하지 않고 그때그때 색다른 맛의 쑥국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44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후기...

행복합니다.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수복



내 인생에 있어 2016년은 잊지 못 할 최악의 한 해였다. 연초까지는 그런대로 좋았다. 여름엔 몽골여행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탐방이 예정되어 있었고, 등 떠밀리듯 선택한 43기 호스피스교육도 기다리고 있었다. 야호!!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이 빨리 미끄러져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의 초입에 어느 월요일이었다. “따르릉~ 따르릉~” “보험공단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우리센터에 한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비가죽으로 속이고 수당을 부당청구 했으니 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공단과 센터를 속인 것이었다. 헐…….

그리고 다음날이었다. 이번엔 딸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라고 했다. 아……. 가슴이 터질 것 만 같았다. 어째 이런 일이…….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은 25일 만에 돌아가셨다. 우리 부부는 많이 싸웠었고, 떨어져 지내기도 했다. 내가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계기도 남자심리에 대해 알고 남편에 대해 좀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나에게 정말 많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공부거리를 주고 간 사람, 미운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

나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과목에는 호스피스와 임종요양보호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강의하기가 늘 꺼려졌다.



왠지 우울해지고 축 처지는 분위기가 싫었기에 일부러 그 과목을 다른 강사에게 맡기고는 했다.

그리고 아직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도, 하기도 나는 젊다고 생각했었다. 해야 한다면 한 10년 쯤 후에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교육원 직원이 44기 생사의 장에 들어오시냐고 묻는다. 그 말에 나는 순간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갔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 밤 사이 안녕이라고, 내가 나의 내일도 모르는데, 살얼음판 같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삶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마음 둘 곳 없는 나에겐 삶의 좌표가 필요했고, 사무실이 전을 직원에게 맡겨 둔 채 44기 생사의 장에 조용히 나를 초대했다.

6박 7일 호스피스 교육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여태까지 받았던 교육은 그냥 주입되었다면 생사의 장은 느끼는 그 무엇이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음미하고 또 음미했다. 분위기는 뭐랄까?

엄숙하면서도 찬찬하고, 경건하면서도 평화롭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고, 깔끔하면서 정성이 깃들어 있고, 혼자이면서도 함께 있는 것 같고, 비워있는 듯 가득 차 있는 뭔가가 있었다.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많이 부르짖고, 깊이깊이 내면의 바다로 빠지면서 그 끝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나를 만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릴 수 있었다.

교육을 마친 지금은 임종요양보호와 호스피스 교육을 자진해서 강의하고 있다.

많은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에게 죽음의 인식의 전환에 대해 얘기한다.

능행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가 아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고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을 완성해가는 것이고 죽음은 생의 완성이며, 또 다른 생의 준비라고…….

생사의 장 인사 때마다 “행복합니다.” 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느껴보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주신 여러 선배님들, 교수님들, 스태프진들, 스님들 그리고 원장스님 및 모두에게 머리 숙여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싶다.

Soul Mother 수련을 마치고 난 후

| Soul Mother 1기 수료생 강민정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하곤 거리가 먼 이야기로만 생각했었다.

가족과 영원한 이별

“아닐 거야 내 아이는 착해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올 거야”

조바심 내며 꿈 이길 바랐건만 꿈이 아니란다.

분노가 일어났다. 그냥 분노가…….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함께 마음 나눌 이가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보다.

철저하게 나 홀로…….

어이없는 현실 앞에 난 무릎을 꿇었고 나의 방향은 시작되었다.

“넌 웃으면 안돼! 넌 행복하면 안돼!”

순간 깨어있지 못한 상황에 후회와 미안함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를 혹사시키기 시작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먼저 떠난 아이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나의 눈빛은 반항과 분노로 가득 차 팽팽해질 대로 팽팽해진 풍선처럼 바늘만 살짝 대면 곧 터질 듯한 눈빛이었다.

질은 안개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미로 속.

소릴 질러 봐도 대답이 없고 손을 뻗쳐봐도 아무것도 닿지가 않는다.

매일매일 일상의 탈출을 꿈꾸며 이곳 저곳 기웃기웃.

나 없는 나로 살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렇게 가다가, 가다가 너무 지쳐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더 이상 갈 의미도 기력도 없다.

마음 떠난 마음으로 그냥 고깃덩이만이 하나 덜렁 남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한줄기 빛이 들어온다.

젖빛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사방엔 연 노랑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다.





여기가 정토마을
 이른 봄 냉이풀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논두렁에도.
 산모퉁이 좁은 길 봄이 오는 길목에도.
 쪽 방촌 빠돌어진 작은 봉창 문에도.
 따뜻하게 비춰주는 봄 햇살같이 Soul Mother는 그
 려게 나와 인연이 되었다.
 겨우 겨우 숨만 쉬던 나의 에너지는 차크라:생명의
 에너지(Soul Mother 수련 중 일부)를 배우며 서서
 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도반들과 함께여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다.
 세상을 향해 쌓은 나의 벽
 나의 벽은 너무 단단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어
 질 것 같지 않았다.
 Soul Mother수련을 받으며 그 벽은 조금씩 허물어
 지기 시작했고, 닫혔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
 했다. 떠나버린 내 마음이 다시 들어올 자리도 만들
 기 시작했다. 능행스님 지도하에 도반들과 함께한
 Soul Mother는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끝이 보
 이지 않던 나의 방향을 멈추게 되었다.
 조금씩 성숙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느낄 때
 가 있다. 어제는 마산 친정 집에 갔다 오는 길에 누
 군가가 나를 부른다.
 여기서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돌아보니 10여 년 전 불편함이 있어 한 번도 연락을
 앓고 지내던 친구가 웃으면서 다가온다. 10년 전 불
 편한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너무 반가워 우린 서로
 껴안았다.

Soul Mother수련을 받기 전엔 다른 사람의 손도 어
 색해서 잘 잡지 못하던 내가 이제 사람을 보면 덥석
 덥석 잘도 껴안는다.

집으로 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해본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던 그 눈빛이었다면 그 친
 구가 먼저 나를 불렀을까?

Soul Mother의 제일 첫 수업은 달달한 눈빛 내기로
 시작된다. 달달한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
 어 있다.

마음에 편안함과 따뜻함이 없으면 달달한 눈빛을
 내기 어렵다. 마음을 속일 수는 없다.

나에게는 가장 어려웠지만 노력하니 마음이 안정되
 고 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

Soul Mother를 통해 나의 본존불인 관세음보살님
 을 만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의 영성의 어머
 니를 깨웠다.

그리고 영성의 어머니와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
 기를 많이도 나누었다.

나의 본존불이 관세음보살님. 내 안의 영성의 어머니.
 그리고 나는 삼위일체가 되어 앞으로의 나의 여정
 에 영원히 함께 갈 것이다.

“혼자가 아니네” 이제 두려움이 없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관세음보살
 님의 따뜻한 미소와 내 안의 영성의 어머니의 포근
 함을 내 손에 가득 담아 그들의 손을 잡아 주려 한다.



만다라가 없을 때 손으로 만다라를 표현



보리반죽에 내 몸의 병을 뽑아내는 의식

정토마을 법화경 독송 제4차 천일기도 티벳스님들과 기도합니다

| 편집실



돌마유

밀교(密敎)는 비밀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문자 언어로 표현된 현교(顯敎)를 초월한 최고심원(最高深遠)한 가르침을 말한다. 중국의 불교에서는 밀종(密宗), 한국과 일본의 불교에서는 진언종, 밀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도 하는데, "밀교"와 "금강승"이라는 두 낱말은 티베트 불교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금강승, 즉 밀교는 불법승 삼보 중에서 법의 화신인 대일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종파이다. 《금강정경(金剛頂經)》에서 말하는 법문(法門)이나 다라니(陀羅尼)·인계(印契)·염송(念誦)·관정(灌頂) 등의 의궤(儀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강승, 즉 밀교는 티베트에서 가장 흥하였고, 아직도 티베트의 지배적인 종교 또는 종파이다. 밀교는 힌두교의 영향이 깊게 들어온 불교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관세음보살, 즉 관자재 보살, 혹은 천수천안보살의 화신으로 정교 일치의 지도자로 깊이 존경한다. 밀교는 티베트인을 가장 평화를 추구하는 민족으로 바꿀 만큼 티베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밀교는 중국 원나라 때도 전파되어 오늘날 밀교를 가장 많이 신앙하는 지역은 티베트와 몽골이다.



티베트의 밀교의식(티술)을 행하시는 티베트의 스님들

정토마을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

「정토마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건립」

입제일 : 2017년 2월 26일(음력 2월 초하루)

기도 주제 : 법화경 독송(제불보사님 가피기도)

기도방법

(1)매일 : 가정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합니다.

(2)매월 4주 일요일 : 언양 정토마을 대법당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집전 : 티베트 스님들과 정토마을 대중스님 합동기도.

기도진행프로그램

병고액난과 액난소멸을 위한 티베트 밀교의식.

법화경.(여래수량품, 약초유륜, 관세음보살 보문품)

매월 4번째 주 일요일 대중기도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불보살님께 공양, 영가를 위한 제사의식.)

천일기도 동참금 : 매월 3만원 36개월 분납(자동이체)

설판 초대 : 개인, 단체접수.

제2 방편품

첫째 주제 :
부처님은 일체중생을 누구나 모두 성불하게
하신다

1. 세 번의 거절과 세 번의 청법[三止三請]은 중생 위한 지혜방편

1) 가령 사리불과 같은 이가 세상 가득 모여도

다시 경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삼매에 들어 계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삼
매에서 나오시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1.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어 알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나니라. 내가
이룩한 제일가는 알기 어려운 법은 부처님이 되어야 비로소 불법의 참다운
모습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나니라.”[諸佛智慧는 甚深無量하여 其 智慧門은
難解難入이니라 佛所成就第一希有難解之法은 唯佛與佛이라야 乃能究盡諸法
實相이니라]

이후에 ‘세 번의 거절과 세 번의 청법’을 거친 뒤에 설법을 하려 하시니 이른
바 ‘삼지삼청(三止三請)’의 청법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송을 살펴보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이던 사리불은 지
혜제일로 성문아라한 가운데는 가장 수행이 뛰어난 제자였는데,

2-2. 가령 사리불과 같은 이가 세상에 가득 모여서 假使滿世間이 皆如舍利
弗하여

다 함께 생각하고 쟀다 하여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 못하고 盡思共度量이라
도 不能測佛智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늘과 땅이 함께 놀랄 일이 아닐까요! 당연히 대
중 속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어나고, 사리불도 아득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2-3. “부처님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은근히 「모든 부처님의 제일가는 방편이
매우 깊고 묘하여 알기 어려운 법」이라 찬탄하시나이까. 제가 옛적부터 일찍
이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부처님께서는,

2-4. “그만 두어라! 그만 두어라! 모름지기 다시 설할 것 아니니라. 만약 이
일을 말하면 일체 세간 모든 하늘 및 사람이 모두 반드시 놀라고 의심하리라.”

이렇게 세 번이나 거절을 당하지만 간절하게 세 번이나 법문을 청합니다. 요
즘 사람들의 근기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
려고 분위기를 잔뜩 잡아 놓고는 “아니다. 이 사실은 너희는 잘 이해하지 못
할 것이고 너희들 수준에서는 모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과 마
찬가지 일겁니다.

묘법연화경 제1권

第二. 방편품

서봉반산(瑞峰盤山)
스님



수준이 낮다느니 지옥 같지도 모른다느니 하면서 뜬말을 들이니 청중은 점점 궁금해지고, 말씀하실 내용에 더욱 관심이 갈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청법의 광경을 《화엄경》십지품(十地品)에서도 설주(說主)인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이 십지(十地)의 이름만 열거하고는 그 내용은 말씀하지 않자, 이 때 상수인 해탈월보살과 대중, 그래도 설법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은근히 광명을 놓아 청법하는 것[三家五請]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질문명과 정보화 사회인 요즈음에도 이렇게 잔뜩 뜬말을 들인다면, 청중들이 모두 참아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릴까요? 아니면 반대로 혼하지 않은 일인지라 더욱더 구름같이 모여들까요! 이 모든 것이 중생의 무명을 깨뜨리기 위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2. 진리의 참다운 모양[諸法實相]을 관찰하라

1) 모든 것은 십여시로부터

2-5. “그만 두어라. 사리불아, 다시 말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가장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들만이 모든 실상의 법을 다 아셨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체,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작용, 이와 같은 원인, 이와 같은 인연,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값음, 이와 같은 근본과 끝과 구경 등이니라.”

[止하라 舍利弗아 不須復說이니 所以者何오 佛所成就第一希有難解之法은 唯佛與佛이라사 乃能究盡諸法實相하나니 所謂諸法에 如是相이며 如是性이며 如是體며 如是力이며 如是作이며 如是因이며 如是緣며 如是果며 如是報며 如是本末究竟等이니라]

이처럼 구마라집譯《묘법연화경》방편품에는, 진리의 실상(實相)에 갖추어진 십여시(十如是)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부중생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의 참다운 모양’을 ‘여시(如是)’라고 함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그 말씀 속에 일상생활 속에 흔히 드러나 있는 진리의 참다운 모습을 다 함축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부처님 입장에서 흔히 보이는 것을 모르는 중생들에게 설명해주려 하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고민 하시다가 ‘여시’라 한 것일까요!

2) 모양에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송이 난초가 피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연과 햇빛과 바람과 기르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야 하듯이 하나의 사물처럼 모든 두루물물(頭頭物物)에도 이처럼 모든 인연들이 성숙되어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사물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를 천태종에서는 그 모양을 보면 그 내용인 성품이 보이고, 어떤 몸체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힘은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작용은 어떤 원인과 인연을 내포하고 있고, 인과 연은 응분의 결과와 보답을 가져오게 된다는, 중생들에게는 무어라고 말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어른들은 쉽게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궁금해서 「엄마, 나 어디로 나왔어요!」배꼽으로 나왔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하는 수준일까요.

둘째 주제 : 방편이 좋아야 많은 불자를 만들 수 있다.

3. 오천퇴석은 일불승을 설하기 위한 지혜방편[五千退席]

- 잘난 체 하는 무리들은 물러가도 좋다

이렇게 청법의 절차가 끝나고 “네가 이미 은근히 세 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설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시며 막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려는 순간, 대중 속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5천명이나 되는 대중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대중이 수만 명 모인 법회자리에서 막 설법을 시작하려 하는데 우루루 자리를 등지고 일어나는 일 보셨습니까? 이번의 연속입니다. 이른바 ‘법화회상 오천퇴석(法華會上 五千退席)’의 장면이라 하는데, 이것은 ‘참 불자[是佛眞子]와 증상만 비구의 차별화’라고 이름 붙여 봅시다. 증상만(增上慢)이 무엇입니까? ‘언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거짓말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방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교신자 곧 불자로 교화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보살도를 가르치는 법문,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경전[敎菩薩法 佛所護念]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회장을 박차고 일어나는, 1불승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성불만으로 만족하는 무리들입니다. 목적지 서울에는 도착하지도 못한 채 수원 뜰에서 다 온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2-6. “이 무리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워 뛰어난 체 하는 증상만이라. 언지 못하고도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 하여 이같은 허물이 있나니라. 그러므로 머물러 있지 아니 하거늘 부처님이 말 없이 굳이 말리지 아니 하셨다. 이제 이 대중에는 결가지와 얹은 없고, 오직 참된 사람만 남았노라. 사리불아! 이와 같은 잘난 체 하는 무리들은 물러가도 좋으니라.”

4.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 일불승과 일대사인연[開示悟入佛之知見]

최초의 설법 때에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교화하시고는 “이 곳에는 모두 여섯 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고는, 자신들이 이미 깨달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갑자기 ‘깨닫지 못한 증상만’이라 하는지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제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법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른바 ‘개시오입불지지견(開示悟入佛之知見)’이니, 1불승의 깨달음[佛知見]을 열어보여서 중생들이 깨달아 들어오게 하는 법문인 겁니다.

2-7. “사리불아! -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開]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려는[示]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는[悟]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도에 들게 하려는[入]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불아! 이것을 부처님들께서 일대사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은 누구나 1불승으로 제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 ‘모든 중생들이 모두 자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欲令一切衆 如我等無異) 성불하고 보살행을 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2-8. 여러 부처 본래 서원 내가 행한 불도로써 諸佛本誓願은 我所行佛道を 중생들을 교화하여 똑같은 도 얻게 하노라 普欲令衆生으로 亦同得此道니라

2-9. 시방세계 각처에는 일승법만 있을 뿐 十方佛土中에 唯一乘法이요

2승 · 3승 없으니, 방편 말은 버릴지니 無二亦無三이니 除佛方便說이니라

2-10. 이 일만이 오직 진실 2승 3승 방편일 뿐 唯此一事實이요 餘二則非眞이니

소승으론 아무래도 중생제도 못하니 終不以小乘으로 濟度於衆生이니라

이런 말씀은 어려운 말이지만 불교를 제대로 알면 나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법이 있음을 아는 깨달은 이들이 누리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불교를 모를 때는 부자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삶을 행복이라 느끼겠지만, 불교를 알고 나면 단순히 6도윤회이듯이, 나의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삶,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행복, 바로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셋째 주제 : 수행을 통하면 누구나 깨달음 이루리라

5. 불자들이 도 닦고 닦으면 오는 세상 부처 되리라

1) 닦는 것이 곧 부처되는 길

2-11.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모양이니 諸法從本來로 常自寂滅相이니
이처럼 불자들이 도도 닦고 닦으면 오는 세상 부처 되리라 佛子行道已하면 來世得作佛이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막연하게 ‘오는 세상’이란 말이 매력이 없겠지만 당시의 대중들은 성불한다는 확신만으로도 땀땀이 기뻐했습니다. ‘오는 세상’도 3아승지겁이나 오랜 뒤의 일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오는 세상의 예로 화성유품의 대통지승 부처님이 10겁 동안 정진한 결과 성불하신 경우, 또 서품에서 연등여래 회상에서 미륵과 문수 등 많은 선배수행자를 제치고 6년 만에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조계종조이신 육조혜능 선사도 행자생활 8개월 만에 먼저 출가한 5백 대중들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례입니다.

2) 6바라밀 수행이나 산란한 염불 만으로도

방편품에서는 다양한 수행법을 권합니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려는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경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6바라밀 수행이나 염불수행입니다.

2-12. 마음이 산란해도 꽃 한 송이 일심으로 若人散亂心으로 乃至以一華를
불상에게 공양하면 많은 부처 뵈게 되며, 供養於畫像하면 漸見無數佛하며

3) 산란한 염불, 어린애들 장난이나 불상을 그리거나

2-13. 넓고 거친 들 가운데 흙을 모아 절 지으며 若於曠野中에 積土成佛廟하며
어린애들 장난으로 흙모래로 탑 세우면 乃至童子戲로 聚沙爲佛塔하면

2-14. 어떤 이는 부처 위해 여러 형상 세우거나 若人爲佛故로 建立諸形像하고
부처님 상 조각하면 그들도 이미 성불했고 刻雕成衆相이라도 皆已成佛道니라

2-15. 마음 산란한 이도 탑모 법당 들어가서 若人散亂心으로 入於塔廟中하고
〈나무불〉 한 번 해도 모두 다 성불했고 一稱南無佛하면 皆已成佛道니라

요즘 세월에 중생들에게 전혀 부담 없이 너도나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문호를 개방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아이들이 절에서 놀거나 소꿉장난 할 때에도 흙모래로 부처님 얼굴 그리고 탑 세우는 아이들, 부처님 공양그릇 만드는 도공이나, 불화 그리는 분, 불상 불탑 조성하는 분. 범패를 잘 하는 분[魚丈] 등도 이런 수행에 해당됩니다.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님이 가득한데 바쁘게 살다보니 일일이 법당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에 밖에서 손만 흔들어도 샅된 마음으로 올리는 천 배 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한결같은 소원은 ‘중생들이 모두 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려는 마음이 곧 부처가 되는 길[修即佛]’이라 강조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토마을은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끌어집니다.
환우들은 자원봉사자의 미소에 기운을 내고
정토마을의 구석구석은 당신의 동참으로 밝혀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시간단위 자원봉사

09:00~14:00, 13:00~17:00, 17:00~21:00

| 일일 자원봉사

10:00~17:00(주간), 20:00~익일 05:00(야간)

| 주간 자원봉사

주 1회

| 장기 자원봉사

도움분야 비품관리, 병원 실내외 청소, 환우목욕, 방
문객안내 병원 안내, 도서 나눔봉사, 환우 수발라운
딩, 환우들과 함께 산책, 치유방송 지원 봉사, 행정
지원 봉사, 화훼(정원수 관리)

재능기부 임상기도, 임종 돌봄(교육 이수자 가능),
집단·개인 공연(음악 악기 춤 등), 아로마 치료,
이·미용, 물리치료분야(카이로프랙틱, 온열 치료,
갈바릭 치료), 의사선생님주말자원봉사(양·한방, 치
과, 이비인후과)



장 소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전 화 ☎ 052)255-8408 담당자 김은구 사회복지사



석남사 봉사회

김희선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에
항상 참여 하시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3주차 (월)

교육원 조리실 식사보조,
된장 담그기, 식재료 정리 등



초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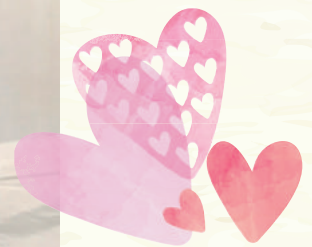
장영순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항상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병원 환우 이,미용봉사 및
병원 미세 먼지청소, 말벗,
휠체어이동, 식사보조 등



정년회, 현불회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님들께서
항상 참여 하시어
물품 후원 및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병원, 교육원 미세 먼지청소, 말벗,
식사보조, 김장 담그기 행사 등



정토마을에서의 독백

번뇌 하나에 염주한 알 돌리고 번뇌 둘에 염주 두 알 돌리다 어느새 백팔 번째 염주 알을 돌리고 있음에도 번뇌 망상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 지나온 삶이 온통 번뇌와 고행으로 가득한 예토[穢土]에서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음인가 보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세상에 올림을 주는 삶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자신에게 만큼은 올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인생 뒤안길에 남겨진 자취들은 업을 짓고 번뇌를 자아내는 삶을 살았으니 회한 가득한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겠는가! 거친 예토에서 허우적거리다 정토마을에 들어선 인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남겨주신 선물이 아니었던가 싶다. 위중해지신 상태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실 때만 해도 연세가 있으시니 치료만 하면 건강을 되찾으실 거란 믿음과 희망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암 말기에 패혈증까지 동반되어 새봄을 넘기시기 힘들 거라는 교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짐을 느끼면서도 설마~~ 이정도 병에 무너질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는 말과 함께 대구로 다시 내려오셨고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금 발생한 패혈증으로 동산병원에 입원 그리고 퇴원하시는 내내 마음을 졸이며 간병을 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안정을 찾으시는 듯 했지만 간암판정을 받으시고 82일 만에 동산병원 응급실로 향하셔야 했고 응급실에서 몇 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명하실 것을 예고하는 의사의 소견에 동생들과 협의하여 의사들이 극구 만류하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해서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다. 이미 간암이라는 것은 아셨지만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는 신념이 강하셨기에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못하신 아버지께 사바세계를 떠날 마음의 준비라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환자실로 옮기신 후 10일 동안 우리 가족은 네 차례나 운명하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했다. 주치의의 준비하고 대기하라는 말을 네 번이나 들을 정도로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 그 자체였다. 하지만 더 처절한 심정은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신 상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나 말썽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했음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 나가는 아픔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마지막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위해 효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철저히 불효로 일관했던 이 못난 자식이 아버지 가시는 길에 마지막 미소라도 띄워 보이실 수 있게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어쩌면 아버지께서 간암판정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날 95일 동안의 시간이 내게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한 시간이었으리라.

이 우매하고도 우매한 불효중생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아니면 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신 동생의 지극한 효에 답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옥 같았던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다. 의식은 거의 없으실 정도로 희미하셨지만 능행스님 원장스님의 높으신 원력으로 아버지와 교감을 할 수 있었고, 그 후로 아버지의 모습은 고통에서 평안을 찾으신 것처럼 온화해 보이시기까지 했다.

2월 1일 오후부터 2월 3일 새벽 2시 45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를 평온하게 보내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인연이 아버지를 정토마을로 모실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지만 예토에서 곁게 살아가는 자식을 정토로 이끌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은혜였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분들 누구라도 수심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능행스님을 비롯한 노스님이신 도감스님과 여러 스님들 그리고 거사님들과 보살님 외 봉사 수행하시는 불자님들의 모습에서도 그늘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이곳이 바로 정토마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 누구 한 분도 환자에게 지극정성을 소홀히 하지 않음은 마음자리에서 봉사와 진정한 희생정신이 비롯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우리 가족과 아버지에게는 짧은 2박3일이었지만 정토마을에서 받은 마음은 살아가는 동안 소중한 재산으로 남겨져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으로 자리하게 될 것 같다. 부처님은 마지막 단 한번이라도 효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우매중생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사바세계를 평온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셨으니 더는 번뇌의 노예가 되지 말고 번뇌무진 서원단하여 불법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정진해야겠다는 각오가 새겨진다. 원장스님을 비롯한 도감스님과 정토마을 모든 스님들의 성불을 축원 드리며... 송산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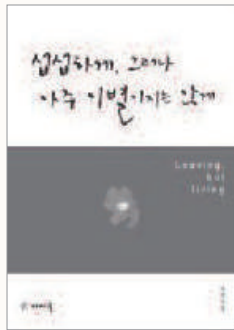
자재 요양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며.....

“아빠~”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러 갈 때 내가 하는 첫마디다. 내가 이렇게 부를 때 아빠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시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웃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팔이 반가워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한다. 아빠께서는 자재요양병원에 2016년 10월 6일에 입원하셨다. 집안 어른들과 동생과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아빠를 집이 아닌 병원에서 생활하시게 하는 것이 항상 마음이 아프지만 입원이 최선책이었다. 아빠는 2011년 12월 17일 토요일 추운 아침에 사고를 당하셨다.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시다가 기계에 감겨서 뇌에 산소가 20분 정도만 공급되었다. 이 사고로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며칠을 계시다가 기적적으로 깨셔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다. 하지만 사고 당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결국 아빠는 혈관성 치매를 앓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알아보셨다. 그러나 사고 전 10~15년의 기억은 잃으셨고 식사를 하셨어도 식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났다. 아빠가 퇴원하시고 엄마의 병간호가 시작되었다. 아빠가 처음에는 침대에 대소변을 보시는 바람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불 빨래를 했고 엄마의 고생이 시작되었다.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도 엄마의 힘들은 끝이 없었다. 그러다 2015년 3월 22일 엄마가 돌아가셨다. 불의의 사고로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아빠 챙기기에 바빴다. 엄마께서 하시던 일이 내 몫이 되었다. 아빠 양치랑 세안 도와드리기, 옷 갈아 입혀 드리기, 대소변 실수 하시면 뒤처리하기....,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다. 아빠께서 혼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혼자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해서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빠를 잘 챙겨드렸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 스스로 힘에 부쳐서 점점 지치게 되었다. 아빠가 혼자서 움직이고 하실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따라 주지 않자 아빠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늘어나고 나도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치매 환자 보호자가 우울증이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 상황에 닥친 것이다. 내가 아빠를 모시고 있으면서 잘 챙기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요양병원에 모시라는 말이 나왔다. 아..... 생각도 못 해 본 일이었다. 아빠를 요양병원에? 마치 내가 못된 딸이 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빠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몇 개월 고민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몇 군데 구경도 가보고 했는데 우연찮게 자재요양병원을 구경하고 간호과장님과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아빠를 모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였다. 무엇보다 마음에 든 건 깨끗하고 넓은 시설과 양질의 식사였다. 그리고 친절하신 병원 관계자 분들의 도움으로 3주간 아빠 옆에서 지내면서 아빠의 병원 적응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하루 세끼 밥이 잘 나와서 아빠께서 식사를 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리고 주중에 프로그램도 있어서 아빠가 심심하지 않으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스님들과 직원 분들이 아빠에게 상냥하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좋았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주중에는 일도 하고 주말에 아빠를 보러 간다. 사실 아직도 아빠를 보고 올 때마다 마음이 찢혀서 눈물이 나지만 이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아빠를 자재 요양 병원에 모시고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은 없다. 그만큼 병원에서는 아빠를 잘 돌봐 주신다. 병원에 갈 때마다 요양 보호사 여사님들,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제 자재요양병원은 아빠에게 제 2의 집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병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송민 합.장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환자의 평화로운 웃음



능행스님 책『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않게』中에서

| 오직 나의 팬

“시님, 나 왔서라.”

병실에서 처음 만난 노보살님의 인사말이다.

“시네, 어서 오세요. 함께 잘 살아봐요. 노보살님.”

“시시님이 엄청 잘 생겼구마.”

다 빠진 치아 사이로 미소를 보낸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밤이 되었다. 밤새 드실 것을 찾으며 바둥거리시느라 한잠도 못 주무셨다는 노보살님. 몸이 무거워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계속 드실 것을 찾는 바람에 결국 간호사실에 비상이 걸렸다. 음식을 씹지도 않은 채 꿀꺽 삼키고 또다시 손을 내미는 노보살님. 급하게 드시는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대책 없이 찌버린 살과 전혀 통제되지 않는 대소변까지.... 조절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분이셨다.

건강할 때 아주 신심이 좋았던 보살님은 동화사 갯바위 부처님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자주 올라가셨다고 했다. 보살님은 뇌출혈로 상태가 말할 수 없이 안 좋았다.

옛날에는 병원이 귀했기 때문에 자주 가지도 못했겠지만, 무엇보다 자식들 키우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단다. 노보살님 역시 여기저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여 누적된 질병과 뇌출혈로 오랫동안 투병해온 모습을 보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아기처럼 보채시는 노보살님, 간호사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회의 때면 말하곤 했다. 밤새 옆방에 계시는 암 환자들의 예민한 귀를 더욱 자극하게 하신다고 모두들 걱정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 싶어 노보살님 침상 곁에서 한참을 놀았다.

“시시님! 나는 복복혀, 복복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몰랐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서 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이해했다.

‘답답혀! 답답혀!’

며칠이 더 지난 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나에게, 나는 복복혀! 복복혀! 하시는 것이었다.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보살님의 얼굴에는 불안, 초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짙고 깊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시님이 곁에 있어 좋아, 좋아!”를 연신 말씀하셨다. 그러다가도 또 “복복혀, 나 집에 가든 복복혀서 죽어!”라고 하셨다. 사실은 처음 오셔서 며칠째 밤새 주무시지 않고 지속적인 간호를 요구하는 노보살님 때문에 다른 환자들까지 밤에 못 잔다고 하여 그냥 집으로 보내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시복복혀!”

여전히 나만 보면 그렇게 외치셨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전라도에 사는 한 어르신께 전화해서 ‘복복혀’라는 단어의 뜻을 여쭙어봤다. 그러자, 어르신은 복복혀라는 말이 ‘외롭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외롭다. 죽고 싶을 만큼 외롭다.’ 그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자 안쓰러운 마음이 울컥 들었다. 아들딸 다 있어도 병들고 늙으면 외로워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걸.

보살님이 외롭지 않도록 간호사들은 밤새 끌어안고 잠을 재우고, 포근히 잠들 수 있도록 마음을 많이 썼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적절한 증상 조절이 기적 같은 빠른 쾌유를 가져다주었다. 증상이 좋아 퇴원을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외로워하시는 노보살님께서 이곳에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3년이 넘도록 울고 웃으며 함께 어울려 살았기에 헤어지는 아픔이 무척 컸으리라.

오랜 뇌출혈로 말기 상태가 다 되어 오셨기에 그때에는 정신적·심리적 간호와 육체적 간호가 절실히 필요할 때였다. 노보살님은 그 옛날 시집살이부터 시작된 당신의 고통을 여러 차례 구수한 이야기로 들려주셨다. 웃으면서 들었지만 노보살님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었다. 자식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수많은 삶의 응어들... 심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뒤엉켜 우리 마음을 참 많이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셨다. 어느새 깊어진 그 수많은 사연을 정토에 묻고, 노보살님은 얼마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며…….

노란 유채꽃 향기에 취한나비 한 마리 너울너울 춤추고 때 이른 들꽃냉이도 하얀 꽃을 하늘 하늘 뿜내며 봄이 오라 재촉하네요. 정유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어느덧 한 달, 올 한해도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정토마을!

사람들이 묻지요, 무엇 하는 곳이에요? 라고 “예전에는 말기암환자를 케어하는 호스피스병동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고자 봉사하며 서로의 아픔을 조금 씩 나누고 용기를 주는 희망의 샘터였지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힐링센터로 거듭나 염불선수행이며 또 여러 사업을 진행하여 울산 자재병원 호스피스병동에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작은 사랑의 실천봉사로 자재병원 환우 분들이 영적이나 육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좋은 소식이 전해오기를 기대하며 청주정토마을에 봉사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청주정토마을 텃밭에 작년에 심어 놓은 고사리가 살포시 얼굴을 들고 반겨 주겠지요. 잘 자라라고 김매주러 가야겠네요. 풍성한 열매를 한 아름 맺고 모든 이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정토마을이 있어 행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지나가버린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알차게 보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도움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찾아 작은 정성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네 주변에 정토마을 같이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가 더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날을 기원하며…….

어느 봄날, 작은 소망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KT사랑의 봉사단 김종원 지부장 드림



감사의 말씀

정유년 정월 장자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판하여 주신 공덕주 여러분들과 부 설판 그리고 기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공덕을 수히 찬탄하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토마을 법인사업의 하나인 국제구호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빈민촌의료 활동을 3월13일부터 3일간 미얀마 타바와 수행센터 딸리니 빈민촌 (대상자 약 2000여명) 자재병원 자원봉사자 팀들이 참여하여 국제의료구호활동에 필요한 각종 약품과 현금으로 참여해주신 공덕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들과 야채 그리고 각종 생필품으로 지원해주시며, 정토마을 제 2차 불사를 위하여 삼천불 불사 및 백팔병상모연을 비롯하여 제 4차 법화경천일기도에 함께 힘이 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정토마을 사부대중은 후원자님들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인류와 일체 생명의 평화적 공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유년 올 한해도 함께 걸어주시며 깊은 관심과 참여로 평화와 공존이 이루어지는 꿈을 만들어가는 일, 당신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초 순경에 석가세존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인도 보드가야 성지 주변에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약품과 후원금을 삼월부터 접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조금씩 마음을 나누면 보드가야 대탑 주변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중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국제 구호사업(의료봉사)후원계좌 : 농협(351-0811-2410-83), 예금주 : 정토마을.
 상담 전화(010-2926-8500)
 국제 구호사업 인도 보드가야 일정이 잡히면 문자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108 병상

2016년 10월

표일순, 김기동, 김수필, 조우진, 임옥이, 김태호, 차병환(영), 이말순, 차수영, 피웅환, 피경준, 박준수, 정다윤, 현귀련, 심순실, 김경숙, 김영주, 김수희, 박효찬, 정성문, 권우덕

11월

천필순, 구영미, 김정옥, 이윤성, 김윤권, 금성애, 고경화, 정춘애, 손정녀, 이춘자, 김명환, 정민수, 이순자, 이은이, 이혁호, 이창호, 최경미, 김경남, 김수방, 이남운, 오정심, 최세진, 익명, 박찬익, 김진길, 신무연, 김미나, 이소령

12월

청전스님, 김미경, 김주성, 이다인, 이동주, 곽동호, 익명, 송지환, 김재준, 성원스님, 김선옥, 유정필, 오재분, 김영임, 송문자, 이정옥, 최정만, 박주성, 심지원, 이진희, 최열바름, 주정현, 최인숙, 석영태, 수연스님, 이승연

2017년 1월

곽노진, 공화숙, 오병훈, 윤일경, 윤은순, 한동숙, 이순자, 대전관 음회, 김영랑, 보영스님, 이구자, 전영자, 이승수, 이동석, 이한우, 정혜숙, 류춘병, 류진아

2월

소보윤, 소보현, 박현수, 박영미, 박대련, 정재익, 정양출, 김종태, 전길성, 정민경, 오지수, 최완수

일시후원

2016년 10월

신정규, 명은희

11월

정명진, 이경희, 김재길, 황다원, 김종옥, 신주형, 이종은, 정숙이, 박종일

12월

김영구, 박가훈, 이재웅, 박광민, 봉녕사, 손을선, 이인숙, 수안스님, 김창현, 허선무, 주경자, (주)지아이에프, 박선이

2017년 1월

신우영, 김봉삼, 박금량, 김기석, 정애순, 현산스님, 조일용, 강태연

2월

김선희, 권영애, 김서현, 권우현, 서영숙, 박성훈, 전이순, 최금자, 윤순기, 윤상필, 이승자, 김덕남, 박귀선, 김병갑, 이범수, 고윤옥, 선길모, 윤미자, 김덕광, 김태보, 박대련, 강민정, 정주윤, 이나연, 이동상, 이성고, 김영주, 이명자, 본연스님, 이남이, 수환스님, 자재병원, 김명환, 조정미(영), 이병호, 이옥희, 박수현

정토가족

2016년 10월

이행자, 이철호, 빈영규, 이명숙, 김덕순, 정승호, 강영철, 이종국, 김상옥, 이영순, 진민경

11월

박인길, 이정옥, 정태경, 김민교, 이상원, 박은실, 이인걸, 김나윤, 한근희, 서영숙, 양택길, 문보배, 오완홍, 정유주, 안숙이, 최병철, 석영태, 박서영, 윤정범, 조점남, 김돌업, 허은정, 곽완식(영), 최금자

12월

김덕희, 홍윤영, 윤대흠, 김시호, 김옥순, 홍판달, 성연옥, 곽광현, 최순복, 김개천, 조순복, 최보경, 이재선, 이경자, 나청도, 장재성, 최상희, 성정녀, 전해경, 장영천, 김진영, 신필자, 주정철, 이정란, 김말순, 이성미, 석영태, 김경순, 법성스님, 정철운

2017년 1월

이석하, 정경래, 최서윤, 안순점, 이수복, 조희영, 김선숙, 김유숙, 최재경, 김명선, 전영자, 현진옥, 김판조, 김기좌, 김영구, 이광우, 박도원, 민건혜, 선현스님, 성산스님, 조숙희, 양경희, 전정희, 김인희, 김중우, 김선우, 김성숙, 박홍수, 박현숙

2월

김병기, 신경희, 김재석, 김연희, 김근철, 양재련, 고흥기, 송인숙, 문정애, 송경진, 김여진, 이춘심, 신명수, 오영기, 김선옥, 권외남, 이해정, 김석양, 이학영, 김원옥, 문경란, 고필선, 윤영순, 양영애, 김순랑, 송복순, 박정순, 이춘방, 윤기홍, 안종태, 정양출, 임옥희, 소순팔, 권오수, 이종청, 박진찬, 김봉걸, 이견명, 손상순

의료기자재

2016년 11월

밍규르린포체

건립후원

2016년 10월

명법스님, 고려대 문화재 알타이팀

11월

이정명

12월

여호준

2017년 1월

강신규, 강윤지, 김해식, 김가영

2월

김경옥, 법성스님, 이형만

물품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땅 1 평

2016년 10월

대경불교산악회, 박진중, 이학자, 윤연숙, 김수필, 김지영, 김제준

11월

제원스님, 최경자, 김소연, 박봉진, 박봉수, 박종일

12월

이병성, 이병학, 허만규, 보명스님, 김시호, 김봉능, 김옥순, 이재선, 아현스님, 수연스님, 영호스님, 문길자, 김준국, 김창숙

2017년 1월

정승혜, 최광보, 김혜영, 김암우(영), 김도숙, 강승봉, 김상옥, 심말순, 김성구, 주필녀, 장원석

2월

봇다팔라스님, 박태순(영)

시멘트

2016년 10월

박우진

11월

손운선

12월

김순규

2017년 2월

범아스님

법당불사

2016년 10월

홍경자, 정민경, 익명

11월

이경완, 박기주, 신경엽, 김소연

12월

방세도, 상호스님, 명현스님, 이정순(영), 박종교(영), 임준영(영), 백영예(영), 이경숙

2017년 1월

손병준(영), 송금자, 손호영, 김청길(영)

2월

박우재, 구본웅, 노영수, 김규리, 부산공림공영회원, 노영수

물품을 후원해 주신분들

곡물공양

2016년 10월

김주성, 김주성, 도선사, 여친스님, 조희영, 장영순, 김병소

11월

불영사, 해강사, 지원스님, 이원기, 조금구, 윤순남, 김정옥, 김모옥, 금성애, 해광사, 범해스님, 이말순, 남정애, 화정스님, 구순남, 장영순, 진말숙, 김병소

12월

남정애, 봉녕사, 구순남, 임재범, 신병량, 허성모, 이영애, 옥천사, 함안대경, 성정녀, 건명숙, 제일영농, 강윤지, 문지영, 김은영, 현통암, 김성애

2017년 1월

김병소, 신지원, 조희영, 대원사, 황순남, 배유경, 임영식(영)

2월

김지영, 김병소, 조금구, 신성우, 창덕암, 장필순, 명지스님, 지허스님, 백순, 창덕암, 지문스님, 금성애(영)

과일공양

2016년 10월

이순옥, 노태식, 이용찬

11월

안미주, 주경숙, 이지서

12월

봉녕사, 금성애, 이지서, 지원스님, 문영조

2017년 2월

이말순, 장필순

꽃 공양

2016년 10월

한유림, 남궁은숙

11월

지원스님

2017년 2월

임주은, 권순선

대중공양

2016년 12월

김강민, 금성애, 이지서, 김지희, 정주윤, 제주한 마음선원

떡 공양

2016년 10월

청제스님

11월

청제스님

12월

정주윤, 문문사

2017년 1월

반야행, 청제스님

2월

임용호, 권순선, 지우스님, 청제스님

야채공양

2016년 10월

민갑식, 이정스님, 포항구룡포, 법인스님

12월

문영조, 문영심

2017년 2월

금강스님, 이말순, 연호스님, 이말순, 해원스님

기타(양념류, 생필품, 가공식품)

2016년 10월

김주성, 노기동, 김시연, 대구공덕회, 서울우유연양대리점

11월

범해스님, 현불회, 김화옥, 김태진, 김주성

12월

봉녕사, 조현주, 서인석, 울산선우회

2017년 1월

전환스님, 이지서, 노기동, 울산선우회, 현불회

2월

이지서, 노기동, 울산선우회, 이경희, 김현아, 현불회, 이지서

행사 공양금외 물품후원

2016년 10월

김제준, 새마을떡집, 문수선원, 최인수, 김현아, 한환희주, 박기홍, 김진길, 민대식, 경덕스님, 도우스님, 수환스님, 혜능스님, 김정희, 장명자, 정옥란, 박영교, 상북농협, 진말숙, 건영설계사무소, 박경아, 조동현, 차영희, 신한은행, 김임숙, 대경불교산악회, 손선휘

2017년 1월

전환스님, 황보규옥, 채정옥, 구순남, 상호스님, 차영희, 최정통, 김소라, 문정, 박가을, 박경아, 천호정, 김봉삼, 안숙이, 36기 연지회, 김시연, 혜수스님, 여옥스님, 황효순, 현서스님, 김석중, 법성스님, 조연경, 광미경, 박연주, 양정윤, 이단희, 천효정, 최세진, 경원스님, 황다원, 최정순, 42기 연지회, 현담스님, 이상필, 오복순, 능인스님, 41기 연지회, 상호스님, 43기 연지회, 길장스님

공덕의 향

박윤경, 홍경자, 이경완, 이정명, 상호스님, 명현스님, 윤미자, (주)지아이에프, 김영구, 김상남

법보시

오명환, 김명희, 정애순, 손해경, 김명숙, 신동희, 박윤례, 최종순, 최경숙, 변강림, 최순자, 정지원

1월 5일 성도재일 맞이하여 사리각 철야정진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부처님 말씀 대로 정토마을 사리 각에서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자 철야정진에 임하였습니다.

불자의 다짐과 부처님께 올리는 발원문, 석가모니 정구다라니 기도 108독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21일 장좌기도 회향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발원하며 기도한 공덕 온 중생에게 회향되어 삼계 유정 무정 모두를 제도하여 일체중지를 이루어 지길 발원합니다.

고승초청 대법회 (법화경 강설 회향)

법화경 강설 - 서봉 반산(瑞峰 盤山)

고승초청1,000일 기도를 2017년 1월 22일 회향식을 하였습니다. 3년 동안 기도에 동참한 법화행자들에게 법화경 28품 한품 한품을 한 알 한 알에 새기어 108염주를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한 생을 살면서 수행한 결과이므로 늘 가까이 두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땐 가슴에 안고 가시면 염라대왕도 불자님들의 수행력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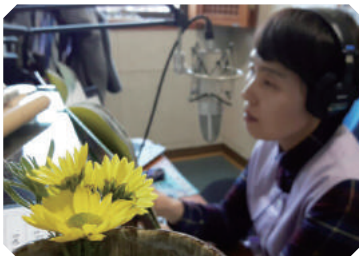
진신사리 봉안 백일기도 (10월 2일 - 3차 회향, 4차 입재)

정토마을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진신사리 봉안 4차, 백일기도 입재, 법회를 봉행합니다. 기도 공덕이 원만히 성취되시어 기쁘고 즐거운 삶을 향유하시길 서원합니다. 석가세존의 진신사리가 현존해 계신 정토마을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를 매일 500독씩 하며 각자의 염원을 담아 기도를 이어갑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불성의 종자를 잘 발아시켜 보시길 서원합니다.

재원환자 대상 마하치유 방송 및 프로그램 재능 나눔 소식

주최 : 마하치유방송실
담당: 치유 코디네이터 이지혜

본 병원에서는 재능 나눔 봉사자들을 모시고 재원환자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을 통해 삶에 대한 애착과 존재감을 독려하며, 가족들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손재선이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환우와 직원의 심신건강에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동화, 시, 책 등에서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건져 올린 아름다운 이야기를 방송으로 전한다.

단체명 | 영적돌봄연구실 영적돌봄가 워드팀 손재선
일 시 | 2017년 12월 8일 ~ 현. 매 주 목요일



하하호호 웃음 한마당

웃음을 활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웃음치료(laughter therapy)법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극복하는 데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체명 | 하하호호예술단 이미숙 선생님 외
일 시 | 2017년 12월 21일 수요일



종이접기

간단한 재료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즐길 수 있고, 노인들의 치매예방 및 치료 등 교육적, 예술적, 의학적으로 널리 그 효과를 기대한다.

단체명 | 하경화 선생님
일 시 | 2017년 12월 24일 토요일



동작표현 예술치유

안전한 도구인 자신의 몸짓을 통해 자신의 욕구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신 속 여러 차원의 합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을 둔다.

단체명 | 타말파 서혜인 선생님 외
일 시 | 2017년 12월 31일 토요일

44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워크숍

44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워크숍이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11월 19일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바이룸에서 봉사자팀이, 11월 21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3층 강의실에서 교육스텝팀이 함께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44기 생사의 장 일정과 교육기간 내 주의사항, 봉사자 VMS가입안내, 후원비 및 물품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되었습니다.



정토마을 공동체 교육실시 - 보건위생

지난 11월 23일, 2016년도 마지막 직원교육이 있었습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바이룸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보건위생교육'으로 김미경 원무부장님(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건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기 Soul Motehr 프로그램 17명 수료

지난 12월 4일, 1기 Soul Mother 프로그램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3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나다움을 일깨우기 위한 집중수련이 이루어졌으며, 수련 과정을 마친 17명의 스님과 재가자가 수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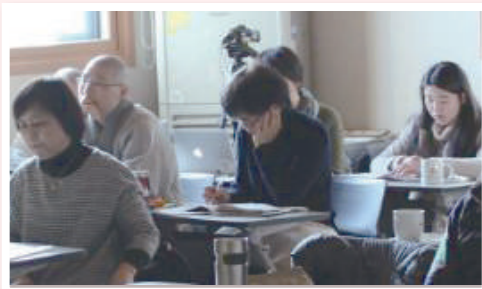


제44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30명 수료

2017년 1월 2일, 마하보디교육원은 6박 7일 일정으로 제44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사의 장은 생사를 인생이라는 한 선에 놓고 현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스님과 재가자 30명이 1월 8일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였습니다.

2016학년도 기말세미나

지난 12월 24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에서는 2016학년도를 마무리하는 기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6명의 석사·인턴·임상상담전문가과정 재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기 발표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하며, 그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제6회 졸업식

3월 4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제 6회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통도사주지스님과 울산광역시교육감님께서 축사를 통해 “끝이 아닌 시작의 의미”를 더해주셨으며, 동문, 가족, 교수진, 재학생 및 이하 애정을 가지고 대학원과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날 석사과정 4명, 생명교육전문가과정 6명이 입학하였으며, 졸업생으로는 석사 3명, 전문가 6명이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봄학기 개강

2017년 3월 3일~4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봄학기가 개강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생명교육전문가과정이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생명교육전문가과정은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윤리 전문가 및 생명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 개강

3월 16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올해로 3년째 접어든 파랑지역아동센터 첫 명상수업을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고학년(6명), 저학년(5명)의 학생들과 지도법사 도우스님이 함께 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지원을 위해 매월 2회 진행되는 명상수업은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8기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 실습중심 -

승려연수 30점 인증(대불교연연 2016-23호)

교육기간 : 2017년 4월 12일(수)~4월 14일(금) (2박 3일)

교육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교육정원 : 30명(선착순 마감)

교육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아미타호스피스교육 수료스님:5만원 할인)

농협 351-0587-2656-13 마하보디교육원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증명사진(3x4) 1매, 승려증 사본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접수문의 : TEL 052)255-8522, 8524 FAX 052)264-0209

E-mail mahabodhi@daum.net www.mahaedu.org 통합검색 마하보디교육원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2017학년도(후기)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명상심리학 전공)

원서접수 :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지원자격 :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개강 : 2017년 9월 1일(금) /

매주 금요일 수업(18:00~22:00)

생명교육 전문가과정

원서접수 : 6월 12일(월) ~ 7월 7일(금)

지원자격 : 제한없음

(의료, 철학, 교육, 사회복지 전공자 우대)

개강 : 2017년 9월 2일(토) /

매주 토요일 수업(09:00~17:00)

입학문의

교학처 행정실 T. (052)255-8521, 8523 F. (052)264-0209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44908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 모연문

바쁜 현실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참다운 삶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 좋은 인연 정토마을이 있습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편안히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새로운 밝은 빛을 찾도록 우리 함께 정토가족이 되시면 어떨까요?

모 연 안 내

구 분	후 원 금 (동참금)	계 좌 번 호	비 고
108병상 후원 (호스피스센터건립)	1,080,000원 (분납가능)	농협 815039-55-003185 (재)정토사관자재회	(분납) 3만원:36개월
진신사리봉안 및 삼천불 조성	1,080,000원 (분납가능)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5만4천원:20개월 10만8천원:10개월
법화경 천일기도	매월 3만원	농협 401131-51-081662 (재)정토사관자재회	3년
1인 후원 정토가족	매월 1만원 이상 후원	부산 101-2002-6325-04 (재)정토사관자재회 농협 401131-51-080245 (재)정토사관자재회	
땅 한 평 공양불사	30만원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전화 : 052)255-8588 팩스 : 052)254-2347



완화의료중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 전문의료 서비스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 양 · 한방 협진진료

양방특수요법 – 항암면역증강요법, 미술토주사,
메가비타요법,
마이애스 카테일 주사 등
한방요법 – 한방 침 · 뜸 · 부항요법, 전침,
탕약치료, 약재요법 등

| 특화치유 서비스

예술융합치유

음악, 미술, 요가, 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심신
치유와 자기 성장을 만들어 가는 자기융합의 행복한
과정 경험

임상전문 상담치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조절과 적극적인 영적 돌
봄을 통한 치유.
임종기도와 의식을 통한 편안한 여정으로의 동행

| 층별안내

- 1F**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양 · 한방 진료실, 집중관리실, F · G실,
입원상담실, 원무과, 공용 목욕실
- 2F** 재활 · 요양병동
마하치유방송실, 휴게실, 탕비실,
영적돌봄연구실, 공용 목욕실
- 3F** 승가병동
한방요법실, 물리치료실, 사회복지실, 영양실,
힐링푸드식당, 차담실, 공용 목욕실
- B1F** 임상병리실, 약국, 바이룸, 봉사자실, 직원휴게실,
교육장, 한방 약제실, 탕전실

| 진료안내

외래진료 : 09:00~18:00
입원상담 : 052)255-8400
(월~금요일, 주말 공휴일 휴무)

| 입원대상자

완화의료(호스피스)대상자.
암환자(초기, 진행, 말기) 중풍 · 노인 · 치매 만성질환 ·
수술 후 회복기관에 있는 환자

정유년 사월

네충스님 火供법회



울산 정토마을자재병원 화공법회 일정

만산은 붉은 꽃으로 물들고 파릇한 이파리들이 피어나는 영남 알프스 간월산 자락에 석가세존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토마을 자재병원 후원가족인 당신을 네충스님 화공법회에 초대합니다. 약사여래 가피기도를 통하여 일체 병고액난과 업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가피를 드리면서 착하고 선한 소망과 소원성취를 위하여 불보살님과 호법신들에게 화공 “火供”을 올리는 법회입니다.

일 시 2017년 4월 8일(토) ~ 오후7시부터 약사여래 가피기도

9일(일) ~ 오전 09 : 30 ~ 13 : 00 ~ 화공법회

9일(일) ~ 오후3시부터 개개인을 위한 (특별) 치유기도

장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아정길 216~39 (정토마을 자재병원)

점심공양 도시락 제공 / 동 참 금 : 화공법회 기도비 5만원 / 영가 천도: 영가 1인1만원

입금계좌 농협 351-0487-2583-23(정토마을)

동참접수 전화접수 ☎ 재단사무국 : 052-255-8588 / 010-2926-8500(사무국)

동참계좌 (농협 351-0352-4390-74(정토마을))

홈페이지 ☐ <http://jungtoh.org>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BHU>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순서



시간	행사내용	장소
10:00~10:30	● 불공의식	대법당
10:30~11:30	● 법요식 - 타종 - 개회 - 삼귀의 - 육법공양 - 봉축발원문 - 청법가 - 입정 - 설법 - 공지사향	
11:30~	● 진신사리 친견의식	임시 사리각
	● 관불의식	병원 앞 수각
12:00~17:00	● 만발공양(잔치국수, 과일, 떡)	공양간

청주정토마을 수행학교에서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염불禪수행 안내

일 시 매월 첫째주(토)AM 9시 - (일)PM 2시(1박2일)

준비물 천주염주, 개인물병, 무릎담요, 염불선복 또는 편안한 복장

참가비 5만원

동참계좌 농협 351-0352-4390-74(정토마을)

장 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접수문의 043-298-2258, 010-7305-4935 무량지팀장

- 전날 입교 가능,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찾아오시는 길: 청주터미널 도착 - 미원버스타입(30분소요), 미원에서 택시 또는 마을버스이용
KTx, SRT기차 오송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오송역이용시 픽업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사전에 연락주십시오.

정토마을

염불禪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청주 정토마을 → 네충신탁 톱뎨우뚱스님 초청

火供법회에 초대합니다.

만산은 붉은 꽃으로 물들고 파릇한 이파리들이 피어나는 청주 정토마을에서 정토마을 후원가족인 당신을 네충스님 화공법회에 초대합니다.



무장애 풀바가피 의식을 통하여
일체 병고액난과 업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가피를 드리면서
착하고 선한 소망과
소원성취를 위하여
불보살님과 호법신들에게
화공 “火供”을 올리는 기도이며
매우 특별한 티벳기도 의식입니다.

청주 정토마을 화공법회 일정

2017. 4. 21. (금요일)

대중전체 무장애 풀바가피 의식 : AM 10시 ~ 12시

네충스님 개인 친견 치유기도 : PM 2시, PM 7시

※ 특별친견 치유기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2017. 4. 22. (토요일)

화공법회 (선망부모천도) : AM 10시 ~ PM 1시

영가 천도 : 영가 1인1만원

동 참 금 : 5만원 입금계좌 : 농협 351-0487-2583-23 정토마을

※ 화공의식에 필요한 개인공양물은 잡곡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동참접수 : T. 043)298-2258 / 010-7305-4935 (무량지 팀장)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청주 정토마을 수행학교)

홈페이지 _ <http://jungtoh.org>

다음카페 _ <http://cafe.daum.net/BHU>



정토마을 석가세존 진신치아사리 봉안 보궁 불사

삼천불 모연불사진행 상황 안내

진신사리 봉안, 보궁 불사와 삼천불 봉안, 법당 대작불사 모연, 진행사항 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환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정토마을은 찾는 신도님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의지 처를 삼고 위로와 위안을 받을 법당불사가 시급하여 불사를 서원하고 모연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아미타불은 주불로 모시고 삼천불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조성하여 대작불사에 불자님 한분 한분의 뜻깊은 서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작불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건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주와 수차례 협의하여 온바 무리한 땅값요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땅 1평 공양불사를 서원하여 천여 명이 동참을 해 주신 결과 2016년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 말에 부족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올해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발 빠른 법당불사가 진행되어 감을 알려드리며 모든 일들이 불보살님과 화엄성중의 가피라 여겨지며 그동안 각각의 서원을 담아 원불을 모셔주시고 땅 1평 공양불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무주의 복전을 일구신 공덕으로 모든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도량이 청정하면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화엄성중의 옹호하심으로 만 가지 일이 성취된다 하였습니다. 정토 장좌21일 기도와 법화경 천일기도, 사리각 1,000일 다라니 기도로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영원한 의지 처인 정토마을 대작불사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연 자를 기다리는 원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서원을 담아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약사여래불을 원에 따라 모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불을 모시고 법당불사에 동참해주신 700여분들, 부처님 형상 조성한 공덕은 수승하여 죽어서도 천안을 얻고 삼악도를 면하고 천상에 태어나며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그 이름 또한 온 세상에 두루 퍼지니 이는 부처님 형상 만든 복이라 합니다.

2017년 4월 삼천불전 불사 모연 상황

주불 아미타불 동참자 : 31건 500만원 이상

삼존불 : 3건 가족 2,000만원

지장보살 : 113건 원불 : 108만원

땅 1평 공양불사 : 803건. 땅 1평 : 30만원

관세음보살원불 : 290건 원불 : 108만원

약사여래 : 101건 원불 : 108만원

일반 동참 : 158건 : 10만 원 이상

법당 내에 원불배치 도면이 확정되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끼리 나란히 모시기를 원하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어 자리를 배정 받으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문의 : 052)255-8586(화주 평등각)

진신사리 봉안 백일기도 (4차) 봉행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중생의 고통과 업장을
소멸하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을 청하는
천수다라니 500독 기도정진에 초대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매 순간,
불은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중생 모두를 위해 다리니를 독송하라.
중생들에게 귀로 듣게 해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입으로 빠르게 다리니를 외게 하되 소리소리마다 끊이지 않게 하면 금생에 성불할 수 있다.”

입 재 2017년 1월 8일 (일) (음력-불기 2561년 12월 11일) 오전 10시
회 향 2017년 4월 16일 (일) (음력-불기 2561년 3월 20일) 오전 10시

친견법회 백일기도 회향 일에 맞추어 진신사리 친견법회가 봉행됩니다.

장 소 정토마을 진신사리봉안처
동 참 금 30만원(분납 가능)
계좌번호 농협 351-0487-2583-23 정토마을
문 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딱돌[bTags gro]

정유년 윤달.(임종복)

이 진언 만다라를 몸에 걸침으로써
오온이 자연해탈 됩니다.

악업이 치성하고 업이 무거운 사람도 선하고 착하여 업이 맑고 가벼운 사람도 모두가 죽어갈 때 이 다라니를 어깨에 걸치게 되면 의식(영혼)은 밝은 빛으로 해탈하여 극락세계 연꽃 속에 태어난다. 이승에서 마지막 숨이 남아 있을 때 딱돌을 어깨에 걸치기만 하더라도 오온(육체)으로부터 집착과 고통을 가볍게 여의고 해탈을 한다.

이것을 만나기는 진실로 어렵고, 만나도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 환희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공손히 받아 지니도록 하라. 임종 시에도 이것을 몸에서 분리시키지 말라. [다비 시에도 이것을 몸에서 분리시키지 말라.] 이것을 보고, 듣고,憶념하고, 접촉함을 통해서 해탈하게 되는 딱돌을 몸에 걸치므로 악업과 죄장이 남김없이 정화되고, 살덩이의 육신이 무지개의 몸으로 바뀌게 하소서! (사자의 서 중에서) 내가 이 육신을 벗어던질 때 탐욕과 분노, 애착의孽醜을 모두 끊고, 마음을 조작 없는 본래상태에 안치하여 죽음을 해탈의 길로 삼도록 가지하소서! 불보살님의 지극한 가피의 힘과 법성의 본질이 본래로 청정함과, 또한 나의 정결한 의지의 힘으로 발원한 그대로 성취되게 하소서!

1200년 전 티베트 성자 빠르마삼바바께서 구술한 비방을 여제자 예시초갯이 글자로 기록하여 숨겨둔 경전이 '사자의 서'다. 빠르마삼바바께서는 바르도퇴돌(사자의 서)을 구술 하면서 말세의 불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만약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듣고서 단지 샅된 소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해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라. 이것은 일체의 정수만을 가려 모은 제호와 같다. 그러므로 이 바르도퇴돌(사자의 서)의 가르침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 해탈하고, 죽어 갈 때 어깨에 걸치는 것만으로 해탈한다.



정유년 윤달.(임종복)



2017년 6월 24일(음력 5월 1일)은 윤달입니다. 윤달은 평년의 12개월 보다 1달이 더 보태진 달로 몇 년마다 한번 씩 듭니다. 예로부터 이 달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이 인간에 대한 감시 감독을 멈추어서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아무 걸릴 것도 없고 탈도 없다고 합니다. 하여 옛 선보님들은 윤달에 수의를 만들고 묘 이장을 했으며, 사찰에서는 예수재를 지내기도 하고 불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정유년 윤달에는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악업이 소멸되고 정토에往生 한다는 딱돌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으며, 수의 속에 입혀드릴 임종복을 준비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임종복은 임종을 하기전에 미리 입혀드리는 속적삼과 바지입니다. 이번 윤달 때 꼭 준비해두셨다가 부모님 임종 때 소중히 사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문 :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 010-2926-8500

담당자 : 평등각 팀장

연등공양금

한 생명 살림등 - 5만원
법당 1년등 - 10만원
극락왕생등(영가등) - 10만원
사업성취등 - 30만원

'부처님 오신 날' 한 생명 살림등 모연

'부처님 오신 날'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희망과 비전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 살림등에 불 밝혀 나와 일체중생의 삶이 밝고 맑아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자재요양병원 법당 건립을 위한 한 생명 살림등을 밝힙니다. 의료사업으로 불치의 질병 예방과
삶의 질과 죽음의 여정이 안전하고 평화롭도록 돌보며
세세생생 고통이 없는 삶에 희망을 선물합니다.

나의 기도

축복

모든 이들에게 붓다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 연등을 밝힙니다.

치유와 회복

당신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이 연등을 밝힙니다.

건강

소중한 당신의 삶은 평안하고 몸과 마음은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이 연등을 밝힙니다.

나에게

지치고 힘겨운 내 삶에 따뜻한 온기와 밝은 빛을 채워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나를 위해 이 연등을 밝힙니다.

정토를 그리워하며

그분은 떠났지만, 내 가슴에 아직도 그리움과 추억으로 살아있는
그분의 또 다른 삶위에 평화와 행복이 민들레 홀씨처럼 뿌러지게 하소서.

축복과 서원을 등불에 담아서 당신에게....

당신에게 붓다의 축복과 평화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하늘가에 등불 밝혀 두오니 당신의 아픔과 고통에
치유와 정화의 가피를 내리어 회복되어지기를 빕니다.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전화 052) 255-8588 팩스 052) 254-2347
입금계좌 : 농협 351-0689-8746-03 (예금주 : 정토마을)

청주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전화 043) 298-2258 팩스 043) 298-1457
입금계좌 : 농협 401120-51-017461 (예금주 : 정토마을)

108병상 기부 동참하기

석가여래 진신사리의 가피가 현현하는 정토마을 도량에서 범화경 독송 공덕으로 당신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병상기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병상을 기부한 공덕으로 이 삶이 다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병상에 눕지 않게 하소서.

| 108병상 기부금은 |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호스피스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적합한 병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정토마을은 20년간 실천해온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108병상 기부금은 치매전문병동, 외상병동, 중환자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등으로 전문화하고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병상모연에 당신을 초대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계좌 농협 815039-55-003185 (재)정토사관자재회

접수방법 전화, 방문, 홈페이지 접수

전 화 052-255-8588 **팩 스** 052-254-2347

방 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법인사무국

홈페이지 www.jungtoh.org



자재병원에 법당이 없어요?

땅 한 평 공양불사

후원자들의 따뜻한 가슴이 모여 오늘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환우와 보호자들이 부처님께 기대 아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법당건립을 위해 땅 1평 공양불사를 발원합니다.

일 시 불 입금계좌 농 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3회 분납 입금계좌 국민은행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전 화 052)255-8588 **팩 스** 052)254-2347 (화주: 평등각)

-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 땅 1평 공양금은 1인 30만원이며,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으로도 공양 올리실 수 있습니다.



Since 1993
45th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교육기간 : 2017년 7월 30일(일)~8월 5일(토) (6박7일)

교육대상 : 승려, 재가자

교육정원 : 45명(선착순 마감)

교육비 : 80만원(학인스님 20% 할인)

접수마감 : 7월 5일(수) 도착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3x1) 1매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접수문의 : TEL. 052) 255-8522, 8524

www.mahaedy.org / 통합검색 마하보디교육원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양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후원자 함께 가꾸기

‘1인 1만원 삼만 정기후원자 운동’

선한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릴레이에 함께해요.
한 사람의 후원은 한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부금, 이렇게 쓰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기금으로 사용되며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나눔동참

국민은행 713701-01-001909 /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 kookmin bank seoul korea

계좌 713701-01-001909 (jungtosagwan-jajaehoe)

접수방법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방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재)정토사관자재회

홈페이지 www.jungtoh.org



재단법인사무국

Foundation Executive Office

상세한 기부금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